

 해양수산부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21. 7. 8.(목) 총 5매(본문 2, 참고 3)	
담당 부서	지도교섭과	담당 자	• 과장 임태호, 사무관 김용원, 주무관 김지윤 • ☎ (044) 200-5560, 5571, 5572	
	국립수산물연구원 연근해자원과	담당 자	• 과장 임양재, 연구사 김중진 • ☎ (051) 720-2270, 2287	
보 도 일 시		2021년 7월 9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7. 8.(목) 11:00 이후 보도 가능		

한·중, 풍성한 서해바다 만들기에 함께 나선다 **- 제3차 한중 공동 수산종자 방류행사 개최 어린 참조기 등 100만마리 방류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7월 9일(금) 오전 11시 30분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도 왕산마리나항에서 '제3차 한·중 공동 수산종자 방류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중 공동 수산종자 방류행사는 2017년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하였으며, 같은 해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순방 시 중국 리커창 총리와의 면담에서 서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양국의 어업협력을 강화하기로 함에 따라 2018년부터 정례화되어 그간 2차례 추진되었다.

* 한·중 어업협정(2000. 8. 3. 체결 / 2001. 6. 30. 발효)의 실시를 더욱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협정 제13조에 따라 설치

제1차 방류행사는 2018년에 전남 영광군에서 참조기와 부세 20만 마리를 방류하였고, 제2차 방류행사는 2019년에 중국 칭다오에서 대하와 꽃게 40만 마리를 방류하였다. 다만,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진행되지 못했다.

올해도 코로나19로 양국 간 인적 교류가 원활하지 않음에 따라, 한국과 중국에서 각각 진행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화상 방류 행사로 진행된다.

행사는 최근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철저한 방역관리 아래 지역어업인 대표 등 행사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여 개최된다.

방류행사는 환영사, 축사, 수산종자 기념방류 순으로 진행되며, 행사장 주변에는 양국 어업인들이 공동으로 조업하고 있는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우리 정부가 수거한 침적 폐그물 사진도 함께 전시하여 행사 참가자들에게 수산자원 관리의 필요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 한중 어업협정 제7조 규정에 따라 배타적경제수역(EEZ) 적용이 배제되는 수역으로서,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양국이 공동으로 수산자원을 관리

이번 행사를 통해 한·중 양국은 어린 참조기, 말쥐치 등 총 100만 마리를 방류한다. 한국의 경우 인천시에서 제공한 참조기 종자 30만 마리와 꽃게 종자 20만 마리 등 총 50만 마리를 연평도, 강화도 분오리 등 우리 연안 어장에 방류*한다. 이들 해역은 참조기와 꽃게의 주요 산란장이자 서식장으로 알려져 있고, 먹이생물이 풍부하여 자원조성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중국은 연태시에서 방류행사를 개최하며, 말쥐치 등 50만 마리를 방류할 예정이다.

* (1차 방류, 연평도) 7월 9일 - 참조기 30만 마리
(2차 방류, 강화도 분오리) 7월 15일 - 꽃게 20만 마리

참조기와 꽃게는 서해의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한·중 공동 방류라는 이번 행사의 취지에 맞게 양국의 연안과 서해 전역에 걸쳐 서식하면서 경제적 가치가 높은 회유성 어종으로, 양국 국민 모두에게 인기가 높은 서해의 대표적인 어종이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한·중 공동 수산종자 방류는 불법어업 단속 등 소극적이고 사후적인 수산자원 관리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서해 수산자원을 관리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라며, “풍요로운 서해에서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한·중 공동 수산종자 방류사업을 확대하는 등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 추진배경

- (대통령 중국 순방 후속조치) 대통령 중국 순방('17.12.13~16) 시, 총리와의 면담에서 서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한·중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
- (제17차 한·중 어공위 후속조치) 서해 수산자원조성을 위해 한·중 수산고위급이 참석하는 치어방류행사를 '18년부터 매년 실시하기로 합의('17.11.16)

□ 그간 개최 현황

- 2018년 한·중 공동치어방류행사('18.7.24(화) / 전남 영광군 향화도항)
 - 수산정책실장, 중국농업부 어업국장 등 160여명 참석, 참조기 및 부세 각 10만 마리 방류(안마도 부근 외해)
- 2019년 한·중 공동치어방류행사('19.6.26(수) / 중국 칭다오 올림픽요트부두)
 - 수산정책실장, 중국농업부 어업국장 등 150여명 참석, 대하 및 꽃게 등 40만 마리 방류(중국 칭다오 외해)

* '20년도 한·중 공동치어방류행사는 '코로나-19'로 미개최

□ 2021년 행사 주요 내용(안)

- (일시/장소) '21.7.9(금), 11:30 / 인천광역시(왕산마리나항)
- (참석자) 해수부, 주한중국대사관, 수과원, 인천시, 수협, 수산회, FIRA 등
 - * 한·중 양국의 코로나-19 방역관리로 인해 비대면 방식으로 행사 진행
- (기념행사) 경과보고, 환영사 및 축사, 기념 방류 및 본 방류* 등
 - * 조기 종자 2천 마리만 행사장 인근 해상에 기념방류하고, 조기 및 꽃게 종자 50만 마리는 생존율 등을 고려하여 외해(연평, 대청, 자월, 덕적 등)로 이동 후, 본방류 실시
- (진행방식) 한·중 양국이 기념행사 및 기념방류를 SKYP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이원화 생중계 실시
- (부대행사)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 폐어구 수거 사진 전시

참고 2

'18년 한·중 공동 치어방류행사 사진



참고 3

2021년 한·중 공동 치어방류행사 사진

